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5. 7. Vol. 18

■ 농정이슈

한국-미국 정상회담, 한·미 FTA 이행 및 TPP 중점 논의

■ 정책브리핑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방안 수립

■ 연구지원

2014년 3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 현장여론

쌀소 과잉 생산, 가뭄에 대한 현장여론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한국-미국 정상회담, 한·미 FTA 이행 및 TPP 중점 논의〉

【한·미 FTA 완전이행 노력 합의】

- **[한미 정상회담 개최, 4.25~26일]** 한미 정상회담(4.25일)에서 양국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한-미 FTA 완전이행’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 이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의 청정에너지와 세일가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첨단 제조업과 극지, 우주탐사 등도 함께 연구하기로 합의
-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한미 FTA 관련 통상마찰로 여겨졌던 원산지 증명 문제에 대해 양국 제품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합의
 - ※ 서면조사, 여러 가지 자료 요구, 현지 검증 등 복잡한 절차 생략하고 상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한 장의 증명서(미국 농무부-품질보증서, 한국 농식품부-동식물 검역증명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
- **(미국)** 그동안 한국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요구해 미국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 많다고 지적
 - ※ 대표적 품목: ‘오렌지주스(주스에 들어가는 농축액이 미국산인지)’, 한국 관세청이 ‘13.6월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대한 반발
- **(한국)** 원산지 증명 간소화로 한국 기업, 미국 수출할 경우 혜택, 다른 사안은 양측이 협의해 원만한 해결 노력

【한국 TPP 가입협조】

- **[미국, 한국 TPP 참여 문제] 한-미 FTA 완전한 이행이 TPP 참여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 기존 입장 확인
 - ※ “미국은 한국 TPP 참여 관심 표명 환영”,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 구체적 관심사항 논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 **(공식 양자협의 미지수)** 미국 태도와 별개로 한국이 협상 참여 선언한다고 해서 기존 협상 참여국과 공식 양자협정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불확실
- **[TPP 규범수준 한미 FTA와 유사*]** 한편, 미국캐나다페루싱가포르말레이시아 6개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 결과 일부 협상 참여국과 추가 협의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현안 정례브리핑(5.30일), “TPP가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 목표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충분히 설명”

자료 : SBS한국경제TV(2014.4.25.) / 동아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YTN중앙일보(2014.4.26.) / 경향신문농민신문NEWSis동아일보시사뉴스이주경제한국일보(2014.4.28.) / 내일신문news1연합뉴스이투데이한국농어민신문(2014.5.1.) / 농민신문(2014.5.2.)

한-터키 FTA 발효 1년, 교역량 30.8% 증가

- **[FTA 발효 후 터키 교역량]** 전년 동기대비 30.8%↑, 같은 기간 전세계 교역 증가율(1.7%)에 비해 크게 증가
 - **(터키 수출입)** 수출 33.6%↑, 수입 11.1%↑, 무역수지 흑자 37.2%↑

한-터키 FTA 발효 전후 수출입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발효 1년 전(A)	발효 1년차	
		금액(B)	B/A
수 출	45.4	60.6	33.6
수 입	6.3	7.0	11.1
교 역	51.7	67.6	30.8
무역수지	39.1	53.6	37.2

주: 발효 1년 전('12.5.1.~'13.4.30.), 발효 1년차('13.5.1.~'14.4.30.), ('14.4월 실적은 잠정치, '14.4.16.~4.30.까지는 일평균 수출입을 환산)

- **[FTA 혜택·비혜택품목 수출 증가율]**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 증가율(35.0%)이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 증가율(30.4%)을 상회하여 FTA가 수출증가에 기여
 - **(수입)** FTA 비혜택 품목군은 증가(214.6%)하였으나, FTA 혜택 품목군은 석유 가스 등의 수입 감소*로 12.3% 감소
 - ※ 터키 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수입 22.7%↓
 - **[품목별 수출]** FTA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합성수지, 철강관, 석유화학 원료, 영상기기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수출은 감소
 - **[품목별 수입]** 관세가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되는 아연광(151%↑)과 변압기 등 정지기기(132.7%↑), 밸브, 베어링 등의 기계요소(83.9%↑), 의류(7.3%↑)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2.7%↓), 기호식품(15.7%↓), 정밀화학원료(9.5%↓)는 감소
 - ※ 아연광 무세, 변압기(8% → 0%), 밸브(8% → 6%), 베어링(8~13% → 10.6~8%), 의류(8~13% → 0%)
- 자료 : KBS(2014.4.28.) / 동아일보·KBS-YTN(2014.4.29.) / NEWSis-서울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조선 일보·파이낸셜뉴스(2014.4.30.)
- 참고 : 관세청 보도자료_「한-터키 FTA 발효 1년 수출입동향 - FTA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30.8% 증가 -」(2014.4.28.)

<한-콜롬비아 FTA 국회비준 동의안 의결>

- **[한-콜롬비아 FTA 국회비준 동의 완료, 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의결
 - ※ 양국은 지난 '09.12월 협상 출범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 거쳐 '13.2.21일 정식 서명

- **[의의]** 아시아 국가 최초 콜롬비아와 FTA 체결함으로써 **중남미 주요 3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에 주요 시장 확보**

2013년 기준	중남미(A)	콜롬비아	칠레	페루	3개국 합계(B)	중남미에서 3개국 비중(B/A)
인구(백만 명)	595	47	17	29	93	15.6%
GDP(억 달러)	59,770	3,870	2,920	2,120	8,910	14.9%
교역규모(백만 달러)	54,692	1,549	7,116	3,423	12,088	22.1%

- **(평가)** 상호 보완적 산업·교역구조와 콜롬비아의 풍부한 자원을 고려, 상생형 자원협력형 FTA 중 하나
 - ※ (한국)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기 전자 등 기술·자본 집약적 상품 주로 수출
 - ※ (콜롬비아) 커피, 석유, 광물 등 1차 상품 주로 수출
 - **[관세철폐]** 현재 교역 중인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
 - ※ 수입액 기준: (한) 99.9%, (콜) 97.8% / 품목 수 기준: (한) 96.1%, (콜) 96.7%
 - **(농산물)** 한국은 커피, 화초류 등 현재 교역 중인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민감 농산물(쌀, 쇠고기, 양념 채소류)**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계절관세·장기 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 ※ 쌀(협정에서 배제)·쇠고기·분유·고추·마늘·양파 등 151개 품목 양허 제외, 여타 583개 주요품목(품목 비중 36.9%)은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 철폐
 - **[한-콜롬비아 FTA 경제적 영향평가 분석]**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한국의 콜롬비아 수출은 운송기기(자동차), 고무화학 등에서 10년간 17.8억 달러 증가, 수입은 1차 산품(커피류), 금속제품 등에서 10년간 771만 달러 증가 예상
 - ※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0.05%, 후생수준 6.45억 달러, 고용 2,338명 증가 전망, 생산파급 효과 4.9조 원 추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자료 : 경향신문·국민일보·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뉴스·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조선일보·한국경제(2014.4.30.) / 농민신문(2014.5.2.)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콜롬비아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 상생형·자원협력형 FTA로 중남미 시장 확보-, - 협정 발효 시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수출은 10년간 17.8억 불 소비자 후생수준은 6.5억 불 증가 전망 -」(2014.4.29.)

<한-EU FTA 추가의정서 국회비준 동의 완료>

- **[‘한-EU FTA 추가의정서’ 국회비준 동의 완료, 4.29일]** 산업통상자원부,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를 **한-EU FTA의 당사국으로 추가**
 - ※ 그동안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 진행, 3.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은 추가의정서에 정식 서명

농정이슈

- **(추가개정서 내용)** 한국 및 EU의 상품 허용을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 기존 한국 서비스 양허는 변동 없고, 기존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일부 추가

※ 추가개정서는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10일 후부터 발효돼 잠정 적용 예정

자료 : NEWSis아주경제이데일리투데이코리아투데이(2014.5.1.)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개정서 국회비준 동의 완료」(2014.4.30.)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 **[농수산식품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산업통상자원부, 농수산업계가 FTA 활용의 기반이 되는 원산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농수산식품 업종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가칭 FTA-Agri) 개발, 무료 보급

※ (현재) 정부가 무료로 보급 중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Korea와 FTA-PASS는 제조업 위주로 전(全)산업에서 사용토록 표준적인 원산지관리 절차 적용·개발함에 따라 농수산식품 업종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용자 편의성 부족

- (시행) ' 14.11월까지 개발 완료, ' 14.12월부터 본격적 보급

- **[완전생산기준 원산지 입증 서류 관리용이]** (대부분 국가) 농수산식품 평균 관세율이 타 품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아 FTA 체결 시 관세 절감 효과 큰 반면, (한국) 농수산식품 FTA 수출활용률은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13년) 농수산식품 총수출규모 약 60억 달러, FTA 체약국으로의 수출 약 21억 달러, FTA 수출활용률 39% 수준(철강금속 76%, 기계류 74%, 화학 공업제품 68% 등)

- **[기대효과]** 농어민 및 관련 업계, FTA 원산지관리가 용이해져 FTA 수출활용률 개선에 도움

※ (현재) 정부·민간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농수산식품분야 주요 원산지기준인 완전생산 기준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서류*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

※ (농산물 입증서류)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출하확인서 필요, (수산물 입증서류) 원양어획물반입신고서, 선박국적증명서, 양식어업 신청·면허권 필요

- **[FTA 활용 전문 교육 및 상담도 지원]** 농수산식품 업종에 전문화된 FTA 교육 과정 신설, 전국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중 농업전문가 수요 지역에 파견하여 상담지원

자료 : 뉴스와이어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이데일리투데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파이낸스투데이(2014.4.30.)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농수산식품업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최대한 지원한다! -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2014.4.30.)

농정이슈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기능 강화

- **[식물병해충에 대한 예찰 기능 강화,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 제정시행]**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열대지역의 식물병해충 국내유입 가능성 더욱 높아져** 국내 생태환경 위험 크게 증가

※ 외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비용 발생 되므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 **(자격확대)** 농업인 → 식물병해충을 다루는 종사자 및 전문가

※ 농업인, 예찰수행공무원, 대학·연구소 연구원, 작물보호제 종사자

- **(임무확대)** 병해충 정보수집, 현장조사, 긴급방제, 교육, 홍보

- **[향후계획]**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검역선진국과 같이 외래 식물병해충에 대한 감시와 초기대응의 효율적 추진 위해 역학조사팀 구성·운영

※ 외국의 예찰방제 중앙조직 운영: (미국) 긴급 및 국내프로그램팀, 식물위생과학기술센터, (호주) 생물안전정책부에 국내방역센터, (뉴질랜드) 1차산업부 이행조치국에 위기대응센터

자료 : 뉴스와이어아헤럴드경제(2014.5.1.) / 농민신문(2014.5.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식물병해충 예찰조사 기능 강화,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 제정시행」(2014.4.30.)

<농진청, 사과면충 발생 증가해 철저한 사전 재배관리 당부>

- **[사과면충 발생 피해 증가]** 농촌진흥청, 최근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면충* 발생 및 피해 증가**, 피해예방 위해 재배관리에 철저한 주의 당부

※ (사과면충) 매미목 면충과에 속하는 해충, 날개 없는 성충은 몸길이가 2mm, 날개 있는 성충은 길이가 2.3mm 정도, 사과 생육기 때 낙엽 등으로 과실성장을 더디게 하는 해충, 심할 경우 과실에 그을음 증상

※※ 사과면충 발생 과수원율: ('12년) 44% → ('13년) 47% 증가 추세, 특히 올해는 이상 기후 영향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율 추정

- **[피해예방 위한 관리]** 4월 중순경부터 월동에서 깨어나 증가하기 시작, 대체로 6~7월부터 9월 발생, 가지치기로 상처부위는 도포제 바르고, 사과 원줄기(주간부) 나무껍질 없애고 소각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2014.4.28.) / 원예산업신문(2014.4.30.)

참고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일보_「사과면충 피해 예방, 철저한 사전 재배관리」(2014.4.24.)

□ 동남아 주요 6개국 수출 가이드북 발간

- **[농식품부·AT, 「농수산물 수출 전략 - 동남아편」 발간]** 동남아 6개국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에 대한 수출가이드북 발간
 - **(아세안(ASEAN)*, 10년간 농수산물 수출액 약 8배 증가)** 최근 가파른 농수산물 수출 성장세 기록***, 향후 농수산물 수출의 주요 시장으로 부각 전망
 -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 아세안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03) 1.7억 달러 → ('13) 13.1(7.7배)
 -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조사]** 동남아 주요 6개국이 아세안 10개 국가 중 한국 농수산물 수출의 92% 차지하는 점 고려*해 동남아 6개국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 조사
 - ※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 차지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수용도 높고, 지속적인 한류 열풍 영향으로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구매 가능성 높다고 분석
 - **(국가별 조사)** 소비트렌드, 식문화, 유통 현황, 각국에 진출한 한국식품의 유통 경로, 경쟁제품 및 통관정보 조사
 - ※ 특히, 현지 식품 바이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농수산식품의 인지도, 만족도에 대한 결과 분석도 포함
- **[향후계획]**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통해 발간,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되는 국가 선정하여 가이드북 추가 발간 예정

자료 : NEWSis 시사뉴스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4.4.28.) / 농민신문·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2014.4.30.) / 한국농업신문(2014.5.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라」 - 농식품부,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 수출 전략 - 동남아편」 발간 -」(2014.4.28.)

□ 농식품부, 「2012 식품통계」 자료집 발간

- **[농식품부·AT, 「2012년 식품통계」 발간]** 국내 음식료품 관련 제조, 유통, 외식, 소비 등의 통계뿐 아니라 미국, 일본, EU의 식품 관련 국가통계 수록
 - **(' 12년 식품제조업 규모)** 식품제조업 출하액* 75조 원, 종사자 179천 명
 - ※ 최근 5년간('07~'12) 연평균 10.2% 성장, 같은 기간 제조업은 9.8% 성장
 - ※ (업종별) 육류가공·저장처리업(13.9%) > 전분·당류제조업(13.3%) > 기타 식료품 제조업(12.4%) > 조미료·식품첨가물(11.2%)
 - **('12년 식품제조업 R&D)** 식품제조업 연구개발비 매출 대비 0.19%에 불과
 - ※ ('10년) 183억 원 → ('11년) 248 → ('12년) 290 → ('13년) 313 → ('14년) 376

- **('12년 외식업 규모, 종사자)** 외식업 매출액* 77조 원, 종사자 1,753천 명
 - ※ 최근 5년간('07~'12년) 연평균 5.4% 성장
- **(세계식품시장 규모)** ' 11년 5.0조 달러 → ' 17년 6.1조 달러 성장 전망

자료 : news1·NEWESis·아주경제·파이낸셜데일리·파이낸셜신문·한겨레·헤럴드경제(2014.4.29.) / 한국농어민신문(2014.5.1.) / 한국농업신문(2014.5.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식품제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2% 고성장 중, 외식산업은 매출 대비 고용효과(1억 원 당 2.3명) 높아 - 농식품부, 「2012 식품통계」 자료집 발간 -」(2014.4.29.)

□ 아시아 곡물비축량 충분, 엘니뇨 발생해도 식품 인플레이션 가능성 적어

- **[아시아 지역, 곡물 비축량 충분]** 올해 '엘니뇨' 발생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쌀, 밀 등 곡물 재고 충분히 올해 엘니뇨 현상 발생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식품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사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높은 편(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5.1일)
 - ※ (국제곡물이사회, IGC) 세계 쌀 시장 공급량이 2013~2014년 유난히 많은 편, 쌀 비축량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른 태국이 지난해와 올해 수출량 크게 확대
 -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 전 세계 쌀 수요·공급의 주요 척도인 재고사용률 2013-2014년 35.9% 수준, 전년 35.7% 보다 상승 전망
 - ※ (호주 커먼웰스뱅크의 루크 매튜 애널리스트) “주요 밀 생산국인 호주의 동부 지역에 지난 두 달간 충분한 비가 와서 올해 밀 농사 풍년 예상하는 농가 많아”
 - **(엘니뇨로 인한 식품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적어)** 엘니뇨가 이상기후를 동반하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곤 하지만 작황 차질로 인해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
 - ※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 “지난 20년간 4번의 엘니뇨현상 겪으면서 식품 인플레이션은 2차례에 그쳐, 이마저도 일부 국가의 쌀 수출 금지 조치, 원유 가격 급등 현상과 맞물려 발생”
 - ※ (캐피털이코노믹스) “엘니뇨가 단기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일시적 현상, 원자재 가격은 곧 원래대로 돌아가”
 -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곡물가격 상승에 영향]** 다만 엘니뇨가 곡물 작황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불안감과 이를 투기에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곡물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의
 - ※ 이미 곡물 원재자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가격상승에 베풀하는 투자자들 크게 증가. 존 바페스 세계은행(WB)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농작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전 세계 식품 물가 최대 15%까지 상승 가능성” 경고
- 자료 : 아시아경제(2014.5.1.)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 방안 수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5.2.)

□ 개요

- **[본격적인 성과 도출 위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보완·발전방안 수립]**
 ' 13.5월 수립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민관 합동 심층평가를 토대로 「보완·발전방안」 수립
 ※ ' 13.7월부터 민관 합동 T/F 통한 '심층평가' 및 '농산물 유통포럼' 등을 통해 추진 상황 점검·평가
- **[보완대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더욱 매진하여 극대화,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기존 과제 개선·신규 과제 발굴
 ※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4.30일) 및 제38회 국가정책조정회의(5.2일)에서 논의·확정

□ 주요내용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평가]**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의 소극적 참여로 증가폭* 낮고, 참여주체 간 이해 관계 상충으로 물류 효율화 위한 대책 추진 미진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12) 8.9% → ('13) 9.9%(1.0%p ↑)
- **[보완대책]** i)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감면(시설평가액의 5% → 0),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시장 사용료 인하(거래액의 0.5% → 0.3) 추진, ii) 도매시장법인 평가 시 정가수의매매 실적 비중 상향(10점 → 15), 중도매인 평가 지표 신설, iii)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 결과 1회 부진 시 외부 컨설팅, 2회 연속 부진 시 외부위탁관리 의무화(농안법 개정, ' 16년부터 적용)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및 단기 대응 역량 강화>

- **[평가]** 금년 초부터 지속되는 배추양파 등 채소류의 동시다발적 공급과잉과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 현 수급관리 한계, 지난 겨울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수급불안 상황 선제적 수급조절 미흡,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 부족

- **[보완대책]** i) 중앙정부, 국민생활 밀접 품목(배추 등) 관리 집중,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 수급조절 확대 유도(정부지원 병행), ii) '고령지 배추' 대상으로 자율수급조절 시범사업(재배면적 신고, 참여농가 인센티브 등) 실시, iii) 배추 등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 시행할 수 있는 발동요건 마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 현저한 수급 불안정 해소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자 단체 등이 요청할 때 공정위 협의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실시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 **[평가]** '로컬푸드 직매장' 과 같은 새로운 직거래 확산, ' 13.9월 건립한 '농협 안성물류센터' 와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 를 통해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확대 기반 마련
- **[보완대책]** i) 로컬푸드 직매장 지속 확충, 직거래 플랫폼*(8월) 통해 접근성 제고, ii) 지역특화 품목의 지역 내 직거래 확대 위해 직거래장터5일장 활성화 지원, iii) 농협 전속출하조직(공선출하회) 육성, 즉석 육가공 판매점 등 신개념 유통확대
 ※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에 참여한 쇼핑몰 운영자들은 자기 소유의 농산물 없이 농가가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 중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판매(무자본 창업 가능), 농가 입장에서는 상품만 등록하면 다수의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대행

<소통 확대>

-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체감도 증대]** '참여형 홍보' 전개할 계획
 ※ 유통구조개선대책과 관련한 체험수기 공모전, 현장 투어단, 사진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전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 조기 구축]** ' 13년 종합대책 + ' 14년 보완대책 추진 ⇒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전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 조기 구축 노력

관세청, 밀·옥수수 등 할당관세품목의 신속통관 유도

□ 할당관세 적용되는 7개 품목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관세청, 7개 품목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과 관련, 5월 부터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 적용받은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7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현행-1 품목) 설탄당 운영* → (개정-7 품목) 설탄,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유연처리 우피, 맥아, 맥주맥(麥酒麥), 가공버터
 - ※ ('11.9월) 돼지고기 등 11개 → ('12.1월) 마늘 등 12개 → ('13.1월 이후) 설탄 1개
- (목적)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 위해 일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품목은 그 취지에 따라 관세 감면혜택 받은 품목에 대하여 '신속한 국내유통의무' 부여

■ 할당관세제도 및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개요

구분	개요																								
할당관세제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필요하거나, 유사물품 간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의 40%p범위 내에서 관세를 조정운영 ※ 관련 근거(관세법 71조), ' 14년 50개 품목 지정운영 중 〈신고지연가산세 대상 할당관세품목 관세율〉 <table><tr><th>구분</th><th>기본관세율</th><th>할당관세율</th></tr><tr><td>제분용 밀</td><td>1.8</td><td>1</td></tr><tr><td>가공용 옥수수</td><td>3</td><td>1</td></tr><tr><td>가공버터</td><td>8</td><td>4</td></tr><tr><td>맥아</td><td>30</td><td>25</td></tr><tr><td>맥주 맥</td><td>30</td><td>25</td></tr><tr><td>유연처리우피</td><td>3</td><td>1</td></tr><tr><td>설탕</td><td>30</td><td>5</td></tr></table>	구분	기본관세율	할당관세율	제분용 밀	1.8	1	가공용 옥수수	3	1	가공버터	8	4	맥아	30	25	맥주 맥	30	25	유연처리우피	3	1	설탕	30	5
구분	기본관세율	할당관세율																							
제분용 밀	1.8	1																							
가공용 옥수수	3	1																							
가공버터	8	4																							
맥아	30	25																							
맥주 맥	30	25																							
유연처리우피	3	1																							
설탕	30	5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제도	수입물품 중 신속한 국내 유통이 필요하다고 사전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등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의무 부여, 신고불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가산세 부과																								

자료 : 관세청(2014.4.30.)

2014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대상지 13개 시·군 선정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선정] 농식품부, 지역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교통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선정 결과 확정·발표 (' 14년 신규, 10억 원, 마사회특별적립금)
- (선정지역) 성주군, 양평군, 예천시 등 13개 시·군, 225개 마을 주민 25,974명
- (추진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 공공서비스 거점-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 ※ 전국 행정리(36천개) 중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3,4천개 행정리(9%)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주요내용

-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 보완] △환승거점지로 교통서비스 연계, △직거래·농촌 관광 등 경제활동 지원, △목욕탕, 보건지소 등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운영주체] 마을자치회·협동조합·작목반·농어촌버스업체, 마을주민이 계획 수립·운영에 적극 참여
- [시행계획]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은 인허가, 조례 제정 등 사업시행 위한 조치 5월~10월까지 마무리, 조치 완료되는 곳부터 순차적 운행 시작
 - (안전관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용, 시·도 및 시·군이 추진상황 수시 점검하여 지도·관리
 - ※ 차량 유지·관리, 승객과 차량의 보험가입, 운수종사자의 자격, 사업면허의 취득 등 포함
 - (국토교통부, 농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사업* 도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완료, 하위법령 개정(시행, ' 15.1.29) 진행 중
 - ※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 노선과 시간이 고정된 버스와 자유로운 택시의 중간단계로 예약형 버스와 같이 수요를 반영하는 대중교통 체계
- [향후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평가·분석하여 지역의 인구 구조·이동 특성·지리적 특성 감안해 지역유형별 최적화한 교통모델 발굴·확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4.30.)

외교부, ODA 독립패널 출범식 개최

□ ODA 독립패널 출범식 개최

- [외교부, 독립패널 출범식 개최, 4.28일] 「외교부 ODA(공적개발원조) 독립패널」(이하 ‘독립패널’) 위원들 참석*한 가운데 독립패널 출범식 개최
 - ※ 학계, 정부, 민간 부문의 역량 있는 12명 인사들로 구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반영
- [목적] 대외무상 ODA 정책·집행 평가,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모색
 - ※ '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래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 보다 효과적·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거쳐 다양한 정책 입안, 추진해 온 바 있음.
- [기대효과] 포괄적인 관점에서 외교부 ODA 정책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하는 역할 담당

□ 주요내용

- [주요활동] △ 외교부의 ODA 정책 및 집행 종합적 재검토, △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 외교 과제와 ODA간 시너지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 △ 외교부와 ODA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건설적·효율적 업무체계 구축 및 외교부 ODA 정책역량 제고 등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담은 독립패널 보고서 채택, 이를 9월 중 외교부장관에게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
 - (주요 검토대상)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부 ODA의 정책·전략, △ KOICA가 역량 있는 글로벌 공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진화 방안, △ 외교부 ODA 정책과 KOICA의 집행업무간 효과적·유기적인 연계 방안
- [향후계획]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외교부의 무상 ODA 선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될 가치 ‘외교부 무상 ODA 정책 및 집행 선진화 방안’ 수립·발표, 독립패널 활동 정기적으로 추진

자료 : 외교부(2014.4.28.)

연구지원 2014년 3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4.14.)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4.4.25.)

□ 총괄

- [3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5.0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
 - (부류별) 신선농식품(0.86억 달러) 2.8%↓, 가공식품(4.16억 달러)은 9.8%↑
 - (국가별) 홍콩(12.7%)·일본(11.0%)·중국(8.7%)·아세안(8.6%)·미국(7.6%)은 증가, 러시아(△5.1%)·EU(△24.1)는 감소
 - ※ 1~3월 누계 기준: 13.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
- [수출 증가 원인] 북미지역의 전반적인 수출호황과 궤련, 제3맥주 등 대형품목의 對日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출 호조

□ 부류별

- [신선농산물] 딸기(16.9%), 사과(171.4%), 채소종자(14.7%) 등은 증가한 반면, 밤(△53.0%), 토마토(△11.7%), 파프리카(△7.8%) 등은 감소
 - (딸기) 홍콩시장에서 미국산 수입 감소로 한국산 수출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아세안지역의 신규바이어 발굴 노력 등으로 수출 지속 증가
 - (사과) '13년 생산량 증가 및 저장성 높은 상품의 저장물량이 증가하여 저장사과 수출 증가
 - (밤) 전년도 신선밤 수출물량 및 소비량 증가로 저장밤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냉동밤의 일본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토마토) 방울토마토의 국내생산 감소에 따른 국내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움 수출 감소
- [가공식품] 제3맥주(36.3%), 고추장(27.5%), 맥주(3.5%) 등은 증가한 반면, 마요네즈(△4.3%), 라면(△2.5%), 커피조제품(△0.7%) 등은 감소
 - (맥주) 한국드라마 영향으로 인한 중국 내 치맥 열풍이 불며 당월 수출 증가

연구지원

- **(고추장)** 대부분 한인마트로 수출되어 왔으나, 수출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은 현지인 마켓 진출 및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증가 추세
- **(마요네즈)**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루블화 평가절하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입식품 소비감소로 이어져 판매물량 감소
- **(라면)** 중국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 감소

국가별

- **홍콩(12.7%), 일본(11.0%), 중국(8.7%), ASEAN(8.6%)** 등은 **증가**한 반면, **러시아(△5.1%), EU(△24.1%)** 등은 **감소**
 - **(일본)** 김치, 인삼 등 신선식품은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제3맥주, 맥주 및 면세용 담배 수요 증가로 인한 궤련 수출호조로 가공식품의 수출은 증가
※ 주요증가품목: 제3맥주, 대두박, 권련, 빵, 맥주 / 주요감소품목: 김치, 인삼
 - **(중국)** 궤련, 설탕 등의 대형품목 수출증가와 한국드라마 영향으로 인한 치맥 열풍으로 당월 맥주 수출 급등
※ 주요증가품목: 맥주, 자당, 조제분유, 커피조제품, 궤련, 비스킷
 - **(ASEAN)** 장기간의 시위로 인한 정세불안으로 태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관측 및 홍보사업 추진으로 전반적인 수출 호조세
※ 주요증가품목: 궤련, 딸기, 과당, 라면, 옥수수전분, 비스킷
 - **(러시아)** 경기 하락세 보이던 러시아 경제가 크림사태 이후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농식품 수출 감소
※ 주요증가품목: 커피조제품, 라면 / 주요감소품목: 권련, 비스킷, 마요네즈, 토마토

2014년 3월 국가별 농식품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국 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수출액	110.1	86.6	45.3	19.0	28.6	18.0	89.4	22.0
증감율	11.0	8.7	7.6	△5.1	12.7	1.5	8.6	△24.1
수출비중	21.9	17.2	9.0	3.8	5.7	3.6	17.8	4.4

현장여론

KRE리포터 현 장 여 론

채소 과잉 생산, 가뭄에 대한 현장여론

자료 : KRE 리포터통신원을 대상으로 장의정보실 자체 조사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4. 4. 1 ~ 4. 25(총 38건)
- [수집대상] KRE리포터, 현지통신원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주요내용

<채소 과잉 생산, 가뭄에 대한 현장여론>

- 채소류 과잉 생산에 따른 산지 폐기 대책 필요
- 다양한 통계를 활용한 채소류 수급조절 필요
-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보 및 로컬푸드 매장 확대 필요
- 계약재배 방식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종자 보급 과잉이 과잉생산 부추겨
- 광역 농업용수 사업이나 저수지 등 가뭄 대책 마련 필요

○ 채소류 과잉 생산에 따른 산지 폐기 대책 필요

- 모든 과채류가 과잉 생산 될 때 마다 수확을 포기하고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박태우, 경남 함양>
- 과잉 생산된 5톤 트럭 분량의 감자가 판매되지 못하고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었음. 감자 뿐 아니라 모든 채소의 과잉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송인숙, 강원 강릉>
- 채소 과잉 생산은 시설하우스에서 사계절 내내 채소를 생산, 공급하여 이를 다 소비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으로 생각됨.<임충빈, 경기 안성>

○ 다양한 통계를 활용한 채소류 수급조절 필요

- 정부 차원에서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 채소 과잉 생산이나 가격 폭락에 대해 농가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며, 농민들도 가격이 좋은 품목만 생산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임.<최시훈, 부산 기장>

현장여론

- 모든 농산물들의 재배면적 및 출하시기, 생산량 등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한다면 수급조절에 도움이 될 것임.<남진하, 강원 정선>
- 관측 통계 활용과 홍보가 필요함. 또한 쌀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용 벼 품종을 단지화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임.<정태근, 경북 구미>
- 작부면적과 생산출하, 재배상황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수급 조절이 필요함.<임충빈, 경기 안성>
- 과잉생산은 개개인이 예측하고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정부차원의 과잉생산 품목과 지역을 선정하여 적정생산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이현순, 경남 통영>
- 가뭄으로 인한 저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과 장기 저장된 채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김병철, 경남 김해>

○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보 및 로컬푸드 매장 확대 필요

- 과잉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농협의 판로 확보 필요함.<김종근, 전남 순천>
- 과잉 생산에 대한 수출이나 가공을 통한 가격 안정이 요구됨.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의 길을 농민들 스스로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멘토가 필요함.<박현근, 강원 횡성>
- 생산자도 한 해의 생산량을 예상하고 조절해야 할 것이며, 과잉 생산된 채소에 대한 직거래 판매를 실시하면 좋을 것임.<김현자, 경남 밀양>
- 농산물 수급조절을 농협 등에서 담당하고 농업인들 스스로도 시세 등을 고려 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 또한 품질 중심의 생산으로 국내소비는 물론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최영호, 충남 부여>
- 로컬푸드매장을 통한 새로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매뉴얼을 개발해 점차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박향, 전남 완도>
- 평택 지역은 품목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시장 조사 및 판로개척에 매진하고 있는 좋은 사례임.<연규석, 경기 평택>

○ 계약재배 방식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지난해 6월 생산한 양파가 제 값을 받지 못해 저장 보관해 오다 햇양파가 나오는 지금까지도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등 악순환이 지속됨. 계약재배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곽동섭, 대구 달서구>

현장여론

- 재배 시기부터 적정 면적 재배 유도 및 계약재배 위주로 통제하고 지역 단위 중심의 특화 작목을 재배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량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함.<배병열, 전남 무안>
- 영월의 배추농사는 지금 한창이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임.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가 이하로 판매되거나 산지 폐기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임.<유영조, 강원 영월>
- 농업인간 자율생산자협회를 만들어 채소 생산량 할당제를 도입해야 함. 할당량에 포함된 채소는 적당한 가격을, 미포함된 채소는 낮은 가격을 준다면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가 해결 될 것임.<고정식, 제주 제주시>

○ 종자 보급 과잉이 과잉생산 부추겨

- 현재 강원도 감자는 과잉재배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년도 재배하는 감자 씨앗을 정부 종자 보급소에서 공급하는데 종자 보급 또한 과잉 공급되어 문제가 됨.<남진하, 강원 정선>
- 필요한 양만큼의 씨앗을 정부에서 공급하거나 도별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농민들 스스로도 과잉생산을 줄여야 할 것임.<나종주, 전남 화순>

○ 현재 농촌에서는 시설 하우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우량농지에 시설 하우스 설치하면 쌀 생산은 줄어들게 되고 채소는 과잉생산 되면서 채소의 가격은 하락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음.<김용덕, 경기 남양주>

○ 광역 농업용수 사업이나 저수지 등 가뭄 대책 마련 필요

- 제주지역은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뭄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함. 최근엔 광역 농업용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고정식, 제주 제주시>
- 제주 전체 농업용수관경을 연결하여 비가 오는 지역의 농업용수를 가뭄 지역으로 보내고 있음.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용수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 중임.<고정홍, 제주 서귀포>
- 강원도는 농지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강물이 있고 산골짜기에 물이 있어 이를 물탱크에 받아 갈수기에 사용 할 수 있음.<변해동, 강원 춘천>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